

##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채명옥\*

<sup>1</sup>청주대학교 간호학과

### Empathic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Personality Type in Nursing Students

Myung-Ock Chae<sup>1\*</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eongj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5년 10월 5일에서 10월 30일까지 수행되었고,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127명의 자료를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는 14가지 MBTI 성격유형으로 나타났다. MBTI의 4가지 심리기능유형에 따른 공감능력은 SF형이 평균 3.7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사소통능력은 NF형이 평균 3.8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공감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의사소통능력( $F=3.194, p=.026$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BTI의 4가지 심리기질유형에 따른 공감능력은 SP형과 NF형이 평균 3.71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사소통능력은 NF형이 평균 3.8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공감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의사소통능력( $F=3.004, p=.033$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MBTI 성격유형에 따른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일반화할 수 있는 반복 연구를 수행하고, MBTI 성격유형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간호학과 교육과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mpathic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personality type. This study was a cross sectional survey an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27 nursing students by means of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rom October 5 to 30, 2015. The data collected was analyzed on SPSS win 18.0. Fourteen personality types were observed in this study participants. The SF type was the highest with a mean of 3.77 in empathic ability according to 4 functions of MBTI and the NF type was the highest with a mean of 3.81 in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4 functions of MBTI. The SP type and NF type was the highest with a mean of 3.71 in the empathic ability according to the 4 temperaments of MBTI and the NF type was the highest with a mean of 3.81 in the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4 temperaments of MBTI.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mmunication ability were observed according to 4 functions ( $F=3.194, p=.026$ ) and 4 temperaments ( $F=3.004, p=.033$ ) of MBTI. Further study will be need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a self-understanding program on the empathic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nursing students' diversity and reflect it in a school curriculum.

**Keywords** : Nursing student, Myers-Briggs type, Empathic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국내외적으로 장기불황이 계속되면서 대졸이상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새로운 병원건립이나 간호등급상승을 위한 간호인력 확대에 간호

\*Corresponding Author : Myung-Ock Chae(Cheongju Univ.)

Tel: +82-10-3379-9328 email: 7702cmo@korea.com

Received January 14, 2016

Revised (1st February 3, 2016, 2nd February 22, 2016)

Accepted April 7, 2016

Published April 30, 2016

사의 요구는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높은 취업률로 인해 간호대학생은 개인의 적성이나 흥미를 염두에 두지 않고 학과를 선택해 실습을 포함한 간호학과 교육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더구나 이렇게 교육과정을 마치고 취업한 간호사들은 임상현장에서 부적응을 겪게 되고 결국 조기 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성향이나 성격을 파악해 간호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의 생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는 개인이 타고난 성격의 경향성을 알 수 있게 하는 지표로, 각 성격유형별로 장·단점이나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2]. 그 중 심리기능유형은 감각이나 직관의 선호와 감정이나 사고의 선호성향 조합에 따라 정신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기질유형은 감각이나 직관의 선호와 즉흥적이거나 판단적인 선호성향 조합에 따른 성격을 다루고 있다[3].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MBTI의 세부적인 조합에 따른 성격유형을 파악한다면, 간호대학생 개개인의 적응을 지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성격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간호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해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감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타인의 감정을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것[4]으로 정의되며, 대상자가 간호사와 간호수행을 신뢰하고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로 상호작용하는 치료적 관계형성을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준다[5]. 또한, 간호사와 대상자의 공감과정은 개별화된 간호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어 대상자의 안녕과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6]. 이러한 공감은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므로,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대상자에게 공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대화기술의 절차와 방법을 주로 다루고 있다[7]. 그러나, 대부분의 간호학과 교육과정은 1, 2학년에서만 공감을 표현하는 대화기술 교과목을 포함하고 있고, 실제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3, 4학년에는 국가고시 과목이 편중되어 있어 지속적인 공감능력 함양이 어려운 실정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능력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감능력과 의사소통[8], 대인관계[9, 10], 문화적 역량[11, 12]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

간호사의 효율적인 의사소통능력은 공감표현을 통한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형성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임상현장의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간의 물리적 마찰 감소로 협력적인 관계를 증진시키고, 심리적인 안정, 간호업무의 효율성 향상으로 조직의 성과와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13]. 그러므로, 의사소통능력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대학생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건이며, 이러한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4].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간호학과 교육과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을 파악한다.
-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을 파악한다.
- 셋째,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심리기능유형, 심리기질유형)에 따른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청주시 소재 1개 대학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방법을 ANOVA, 효과 크기 .40, 검정력 .80, 유의수준 .05로 하였을 때 76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140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13부를 제외하고 127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MBTI 성격유형

본 연구에서는 Briggs와 Myers가 개발한 성격유형검사(MBTI)를 Kim과 Shim[15]이 한국어판으로 표준화한 자기기입식 총 94문항의 Form G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MBTI는 두 가지씩 양극을 이루는 네 쌍의 지표가 있고 이를 조합한 16가지의 MBTI 성격유형이 네 개의 문자로 표시된다. 네 쌍의 지표는 외향형(Extraversion)과 내향형(Introversion), 감각형(Sensing)과 직관형(iNtuition), 사고형(Thinking)과 감정형(Feeling) 그리고 판단형(Judgement)과 인식형(Perception)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MBTI는 심리기능유형과 심리기질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16], 심리기능유형은 ST형 (Sensing Thinking), SF형(Sensing Feeling), NF형(iNtuition Feeling), NT형(iNtuition Thinking)으로 분류되며, 심리기질유형은 SJ형(Sensing Judgement), SP형(Sensing Perception), NF형(iNtuition Feeling), NT형(iNtuition Thinking)으로 분류된다.

### 2.3.2 공감능력

본 연구에서는 Davis[17]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on Index [IRI])를 Jeon[18]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인지 공감 15문항, 정서 공감 15문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한 5점 Likert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Yang, Lim과 Lee[1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4였다.

### 2.3.3 의사소통능력

본 연구에서는 Rubin 등[19]이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능력(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ICC])에 Hur[20]가 7가지 개념을 추가하여 수정·보완한 글로벌 인간관계 의사소통 능력(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GICC]) 도구 1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 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 관리, 표현력, 지지력,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간파력, 반응력, 잠음통계력이라는 15가지 하부개념을 가지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

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Hur[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2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0이었다.

##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2015년 10월 5일에서 10월 30일까지 수행되었고, MBTI를 이용한 성격유형검사는 대상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실시한 자료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의 결과만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설문지 배부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한 후 대상자들로부터 연구 참여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에는 본 연구로 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에 자유의사로 참여할 것,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였다.

##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MBTI 성격유형은 빈도와 백분율로,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MBTI 성격유형(심리기능유형, 심리기질유형)에 따른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독립표본 t-test와 ANOVA,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및 MBTI 성격유형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연령은 20.7세였고, 성별은 여학생이 94.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학년은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거주형태는 기숙사가 40.9%로 가장 많았고, 건강상태는 55.9%가, 교우관계는 63.8%가 '좋다'고 응답하였다. 입학 동기는 '높은 취업률'이 30.7%로 가장 많았고, 이 외에 '적성에 맞아서' 24.4%, '부모님 및 선생님의 권유' 2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은 44.1%가, 간호학과 전공에 대해서는 37.0%가 '조금 만족한다'고 답하였고, 학업성적은 60.6%가 '중'이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MBTI 성격유형은 Table 2와 같다. MBTI의 16가지 성격유형을 살펴보면, ESFJ형이 15.7%로 가장 많았고, ESTJ형 11.8%, ENFP형 11.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INFJ형은 0.8%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MBTI의 4가지 심리기능유형에서 SF형이 40.9%로 가장 많았고, ST형 33.1%, NF형 18.9%, NT형 7.1%의 순으로 나타났다. MBTI의 4가지 심리기질유형에서는 SJ형이 45.7%로 가장 많았고, SP형 28.3%, NF형 18.9%, NT형 7.1%의 순으로 나타났다.

### 3.2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수준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수준은 Table 3과 같다.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70점,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63점으로 나타났다.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은 Table 3과 같다. 공감능력은 입학 동기( $F=2.540, p=.032$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사소통능력은 학년( $F=6.881, p<.001$ ), 거주형태( $F=3.619, p=.030$ ), 건강상태( $F=5.593, p=.005$ ), 교우관계( $F=10.115, p<.001$ ), 입학 동기( $F=2.524, p=.033$ ), 대학생활 만족도( $F=3.343, p=.012$ ), 간호학 전공 만족도( $F=4.498, p=.002$ ), 인지한 학업성적( $F=4.977, p=.008$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분석 결과 학년에서 4학년이 1, 2, 3학년에 비해 의사소통능력이 더 높았고, 건강상태에서 ‘좋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보다, 인지한 학업성적이 ‘상’인 대상자가 ‘하’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4 MBTI 유형에 따른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대상자의 MBTI 유형에 따른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은 Table 4와 같다. MBTI의 4가지 심리기능유형에 따른 공감능력은 SF형이 평균 3.77점으로 가장 높았고, NT형이 평균 3.60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의사소통능력은 NF형이 평균 3.81점으로 가장 높았고, ST형이 평균 3.54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BTI의 4가지 심리기능유형에 따른 공감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의사

소통능력( $F=3.194, p=.026$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분석 결과 NF형이 ST형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BTI의 4가지 심리기질유형에 따른 공감능력은 SP형과 NF형이 평균 3.71점으로 가장 높았고, NT형이 평균 3.60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의사소통능력은 NF형이 평균 3.81점으로 가장 높았고, SP형이 평균 3.54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BTI의 4가지 심리기질유형에 따른 공감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의사소통능력( $F=3.004, p=.033$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Age (yr)		20.73±1.51
Gender	Female	120(94.5)
	Male	7(5.5)
Grade	1	33(26.0)
	2	33(26.0)
	3	28(22.0)
	4	33(26.0)
Place of residence	Dormitory	52(40.9)
	Home	42(33.1)
	Rented room	33(26.0)
Health status	Good	71(55.9)
	Common	52(40.9)
	Bad	4(3.1)
Interpersonal relationships	Good	81(63.8)
	Common	45(35.4)
	Bad	1(0.8)
Entrance motive	High employment rate	39(30.7)
	Appropriate aptitude	31(24.4)
	Recommendation by parent and teacher	28(22.0)
	Good image and experience on nurse	17(13.4)
	High school record	8(6.3)
	Have a service job	4(3.1)
	Very satisfactory	11(8.7)
Satisfaction on university life	A bit satisfactory	56(44.1)
	Common	35(27.6)
	A bit unsatisfactory	22(17.3)
	Very unsatisfactory	3(2.4)
	Very satisfactory	37(29.1)
Satisfaction on major	A bit satisfactory	47(37.0)
	Common	37(29.1)
	A bit unsatisfactory	5(3.9)
Perceptive academic achievements	Very unsatisfactory	1(0.8)
	Fine	24(18.9)
	Medium	77(60.6)
	Poor	26(20.5)

**Table 2.** Personality Types of Subjects by MBTI (N=127)

Variables	Categories	n(%)	
Type of *MBTI	ISTJ (Introversion Sensing Thinking Judgement)	11(8.7)	
	ISFJ (Introversion Sensing Feeling Judgement)	12(9.4)	
	INFJ (Introversion iNtuition Feeling Judgement)	1(0.8)	
	ISTP (Introversion Sensing Thinking Perception)	4(3.1)	
	ISFP (Introversion Sensing Feeling Perception)	7(5.5)	
	INFP (Introversion iNtuition Feeling Perception)	2(1.6)	
	INTP (Introversion iNtuition Thinking Perception)	2(1.6)	
	ESTP (Extraversion Sensing Thinking Perception)	12(9.4)	
	ESFP (Extraversion Sensing Feeling Perception)	13(10.2)	
	ENFP (Extraversion iNtuition Feeling Perception)	14(11.0)	
Function of MBTI	ENTP (Extraversion iNtuition Thinking Perception)	7(5.5)	
	ESTJ (Extraversion Sensing Thinking Judgement)	15(11.8)	
	ESFJ (Extraversion Sensing Feeling Judgement)	20(15.7)	
	ENFJ (Extraversion iNtuition Feeling Judgement)	7(5.5)	
	ST (Sensing Thinking)	42(33.1)	
	SF (Sensing Feeling)	52(40.9)	
	NF (iNtuition Feeling)	24(18.9)	
	NT (iNtuition Thinking)	9(7.1)	
	Temperament of MBTI	SJ (Sensing Judgement)	58(45.7)
		SP (Sensing Perception)	36(28.3)
NF (iNtuition Feeling)		24(18.9)	
NT (iNtuition Thinking)		9(7.1)	

\* Myers-Briggs Type Indicator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MBTI 성격유형에 따른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MBTI 성격유형을 분석한 결과 ESFJ형, ESTJ형, ENFP형, ESFP형의 순으로 나타났고, 16개 성격유형 중 INTJ형과 ENTJ형을 제외한 14개 유형으로 분석되었는데, Hwang과 Kim[21]의 연구에서 ISTJ형, ESTJ형, ISFJ형의 순으로 나타났던 결과와는 차이가 있고, Jang 과 Kim[22]의 ESFJ형, ESFP형, ESTJ형의 순으로 나타났던 결과와는 유사하다. 이는 Hwang과 Kim[21]의 연구와 본 연구는 연구 진행시기에 차이가 있어, 시대에 따라 사회적인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도 내향형에서 외향형으로 변화된 것이라 생각된다.

대상자의 MBTI 심리기질유형은 SF형, ST형, NF형, NT형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Lee, Kim 과 Chu[23]의 연구에서 ST형, SF형, NF형, NT형의 순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NF형이나 NT형에 비해, 가장

빈도가 높았던 SF형과 ST형 간에는 5~7% 정도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MBTI 심리기질유형 중 SF형과 ST형이 74%로 감각형 S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MBTI의 한국 표준화에 관한 연구에서 대상자인 대학생의 73%[15],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학교적응 연구에서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73%[23]가 감각형 S였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대상자의 MBTI 심리기질유형에서는 SJ형, SP형, NF형, NT형의 순으로 나타났고, Jang 과 Kim[22]의 연구와 Lee, Kim과 Chu[2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낸 감각적 판단형 SJ형은 보호자적 기질이라고도 불리며 책임과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계획적인 간호를 시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간호사의 자질에 부합하는 유형이긴 하나, Lee, Kim과 Chu[23]는 SJ형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미숙할 수 있으므로 간호업무 수행 시 응급이나 위기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에 익숙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상자의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70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했고 본 연구와 같이 간호대학생 1~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과 Yi[24]의 연구에서 평균 3.58점,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Yang, Lim과 Lee[11]의 연구에서 평균 3.50점이었던 결과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의학교육에서도 의대생들의 공감능력 증진을 주요 목표로 세우고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의 필요성을 주장[25]하고 있는 바, 간호대학생들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또한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63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한 Joo, Sohng과 Kim[26]의 연구에서 평균 3.68점이었던 결과와는 비슷하였고, 1~4학년 공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wang과 Yun[27]의 연구에서 평균 3.59점이었던 결과와도 많은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이는 앞으로 임상현장에서 실제 간호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비 전문직 간호사로서, 의사소통능력을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공과대학생과는 차별적인 의사소통능력 향상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간호학과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Table 3.** Empathic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7)

Variables	Category	Empathic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Mean ± SD	t or F(p)	Mean ± SD	t or F(p)
Gender	Female	3.70±0.35	-0.894	3.63±0.36	0.552
	Male	3.57±0.38	(.403)	3.71±0.42	(.600)
Grade	1 <sup>a</sup>	3.71±0.30		3.57±0.33	
	2 <sup>b</sup>	3.73±0.33	1.061	3.52±0.36	6.881
	3 <sup>c</sup>	3.59±0.36	(.368)	3.56±0.34	(<.001)
	4 <sup>d</sup>	3.73±0.40		3.86±0.31	a,b,c<d
Place of residence	Dormitory	3.73±0.28		3.53±0.36	
	Home	3.69±0.41	0.537	3.68±0.35	3.619
	Rented room	3.65±0.37	(.586)	3.72±0.34	(.030)
Health status	Good <sup>a</sup>	3.70±0.34		3.71±0.35	5.593
	Common <sup>b</sup>	3.68±0.37	0.109	3.54±0.35	(.005)
	Bad <sup>c</sup>	3.77±0.37	(.897)	3.30±0.07	a>b
Interpersonal relationships	Good	3.73±0.35		3.73±0.34	
	Common	3.62±0.34	2.965	3.46±0.32	10.115
	Bad	4.27±0.00	(.055)	3.27±0.00	(<.001)
Entrance motive	High employment rate	3.66±0.37		3.50±0.35	
	Appropriate aptitude	3.78±0.36		3.74±0.37	
	Recommendation by parent and teacher	3.76±0.32	2.540	3.66±0.39	2.524
	Good image and experience on nurse	3.68±0.28	(.032)	3.72±0.25	(.033)
	High school record	3.33±0.17		3.44±0.31	
	Have a service job	3.68±0.51		3.77±0.32	
Satisfaction on university life	Very satisfactory	3.85±0.22		3.81±0.40	
	A bit satisfactory	3.71±0.37		3.69±0.36	
	Common	3.68±0.32	0.912	3.50±0.33	3.343
	A bit unsatisfactory	3.62±0.39	(.460)	3.54±0.33	(.012)
	Very unsatisfactory	3.58±0.42		3.93±0.07	
Satisfaction on major	Very satisfactory	3.77±0.37		3.81±0.35	
	A bit satisfactory	3.73±0.36		3.60±0.33	
	Common	3.59±0.27	1.900	3.51±0.34	4.498
	A bit unsatisfactory	3.51±0.43	(.115)	3.40±0.37	(.002)
	Very unsatisfactory	3.87±0.00		3.93±0.00	
Perceptive academic achievements	Fine <sup>a</sup>	3.81±0.24		3.81±0.32	4.977
	Medium <sup>b</sup>	3.68±0.39	1.946	3.61±0.36	(.008)
	Poorc	3.63±0.30	(.147)	3.51±0.33	a>c
Total		3.70±0.35		3.63±0.36	

결과라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학과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은 입학 동기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Kim과 Yi[24]의 연구에서 성별, 학년, 전공만족도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입

**Table 4.** Empathic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of Subjects according to Function, Temperament of MBTI (N=127)

Variables	Category	Empathic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Mean ± SD	F(p)	Mean ± SD	F(p)
Function of MBTI	ST (Sensing Thinking) <sup>a</sup>	3.61±0.32		3.54±0.37	
	SF (Sensing Feeling) <sup>b</sup>	3.77±0.35	1.865	3.61±0.35	3.194
	NF (iNtuition Feeling) <sup>c</sup>	3.71±0.35	(.139)	3.81±0.30	(.026)
	NT (iNtuition Thinking) <sup>d</sup>	3.60±0.43		3.70±0.41	a<c
Temperament of MBTI	SJ (Sensing Judgement)	3.69±0.28		3.60±0.34	
	SP (Sensing Perception)	3.71±0.43	.235	3.54±0.38	3.004
	NF (iNtuition Feeling)	3.71±0.35	(.872)	3.81±0.30	(.033)
	NT (iNtuition Thinking)	3.60±0.43		3.70±0.41	

학 동기 중 ‘적성에 맞아서’라고 응답한 대상자에서 공감능력 점수가 가장 높았던 이유는 대상자 본인의 성향이 공감능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간호사의 적성에 맞다고 판단해 간호학과를 선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학년, 거주형태, 건강상태, 교우관계, 입학 동기,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 만족도, 인지한 학업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Ji, Bang과 Jeon[14]의 연구에서 전공 만족에 따라, Lee와 Gu[28]의 연구에서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Ji, Bang과 Jeon[14]의 연구의 경우 1, 2학년을 대상으로 다른 의사소통능력 도구를 사용하였고, Lee와 Gu[28]의 연구의 경우 같은 도구를 사용했으나 2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측정도구와 연구대상자에 차이가 있어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MBTI의 4가지 심리기능유형에 따른 공감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심리기능유형 중 SF형이 평균 3.77점으로 공감능력이 가장 높았다. MBTI의 4가지 심리기능유형에 따른 공감능력을 확인하는 선행 연구가 없어 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으나 SF형은 동성적 우호적 유형으로 주로 개인의 주관이나 온정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감정을 신뢰하면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증시하는 유형이기 때문[29]에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F형은 간호사, 소아과 의사, 초등학교 교사 등의 직업에서 성공과 만족을 가질 수 있다[29]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중 SF형이 40.9%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 선호경향에 맞게 학과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MBTI의 4가지 심리기능유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분석 결과 NF형이 ST형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관적 감정형인 NF형은 열정적 통찰적 유형으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감정을 사용하는 따뜻한 온정의 소유자이고,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직관적 통찰을 인간 관계에 사용하기 때문에[29] 대상자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효과적이면서 사회적으로도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30]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간호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NF형에서 학업성취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31], NF형은 인식할 때는 감각보다 직관을 선호하

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29],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실습 등 교육과 프로그램의 수행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ST형의 의사소통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ST형은 실제적이고 사실중심적 유형으로 논리적 분석에 의해 사결정하고 인정에 얽매이지 않는 경향을 보이므로[29], 상대방에 대한 온정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ST형의 간호대학생의 경우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명확하게 학습목표를 제시한 후[32] 단원에 따른 구체성을 강조하고 자발적 동기화를 강화할 수 있는 교수법 즉, 소그룹 활동, 발표식 수업, 문제중심학습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한다[2].

MBTI의 4가지 심리기능유형에 따른 공감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심리기능유형 중 SP형과 NF형이 평균 3.71점으로 가장 높았고 SJ형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NT형이 평균 3.60점으로 공감능력이 가장 낮았는데, NT형은 직관적 사고형으로 자기만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화를 잘 내고 통솔 및 통제하는 것을 즐기며 의사소통 시 정서표현이 서툰 비사교적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33] 다른 유형에 비해 공감능력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NT형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자기중심적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MBTI의 4가지 심리기능유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NF형이 가장 높았고, SP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NF형은 기질적으로 개별적인 관계를 중시하고 정서적 민감성이 높으며 의사소통에 능하여[33] 다른 기질에 비해 의사소통능력이 높았던 반면, 예술가적 기질이 있는 감각적 인식형 SP형은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감능력이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높지만, 본질적으로 자유롭고 충동적이며 구속을 싫어하고 의무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29] 다른 심리기능유형에 비해 의사소통능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SP형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매우 표현적이고 활동지향적인 성향에 맞도록[29] 다른 MBTI 심리기능유형의 교육방식과는 차별화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게임이나 예술을 접목한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MBTI의 4가지 심리기능유형과 심리기질유형에 따른 공감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은 심리기능유형과 심리기질유형의 S와 N, T와 F, J와 P의 조합에서 어떤 한쪽으로 편중된 점수를 가져 심리기능과 심리기질유형이 결정되어도 그러한 선호성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특성으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34]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뚜렷한 선호성이 있는 개인은 그 선호성을 잘 활용하여 선호성과 관련된 기술과 능력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어떤 개인은 이러한 선호성을 잘 활용하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MBTI 성격유형 관련 연구 대상자들의 선호도에 따른 특성발현에 차이가 나타나[23]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MBTI 4가지 심리기능유형과 심리기질유형에 따른 공감능력에 차이가 없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공감능력보다 간호학과 교육과정에 의해 강화된 의사소통능력은 심리기능유형과 심리기질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향상되어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 사료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확인하고, MBTI 성격유형에 따른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MBTI 유형은 16가지 유형 중 ESFJ형이 15.7%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의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70점,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63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은 입학 동기( $F=2.540, p=.032$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의사소통능력은 학년( $F=6.881, p<.001$ ), 거주형태( $F=3.619, p=.030$ ), 건강상태( $F=5.593, p=.005$ ), 교우관계( $F=10.115, p<.001$ ), 입학 동기( $F=2.524, p=.033$ ), 대학생활 만족도( $F=3.343, p=.012$ ), 간호학 전공 만족도( $F=4.498, p=.002$ ), 인지한 학업성적( $F=4.977, p=.008$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BTI의 4가지 심리기능유형과 심리기질유형에 따른 공감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의사소통능력은 MBTI의 4가지 심리기능유형( $F=3.194, p=.026$ )과 심리기질유형( $F=3.004, p=.033$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별 간호대학생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MBTI 성격유형에 따른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일반화할 수 있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별 간호대학생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MBTI 성격유형을 파악하여 그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간호학과 교육과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Y. Hosoda,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diagnostic inventory for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56, no. 5, pp. 480-490, 2006. DOI: <http://dx.doi.org/10.1111/j.1365-2648.2006.04048.x>
- [2] H. K. Jung, M. S. Kim, Y. J. Yoo, S. O. Kim, D. Y. W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3, no. 4, pp. 516-525, 2007.
- [3] S. U. Lim, "A study on child care teachers' MBTI personality types and job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Baekseok University, Chungcheongnam-do, 2012.
- [4] M. L. Haffman,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DOI: <http://dx.doi.org/10.1017/CBO9780511805851>
- [5] J. Travelbee, "Interpersonal aspects of nursing (2nd ed.)", Philadelphia: F. A. Davis, 1971.
- [6] S. Brunero, S. Lamont, M. Coates, "A review of empathy education in nursing", *Nursing Inquiry*, vol. 17, no. 1, pp. 65-74, 2010. DOI: <http://dx.doi.org/10.1111/j.1440-1800.2009.00482.x>
- [7] S. H. Park,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Seoul: Moonumsa, 1997.
- [8] E. J. Ji,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empathic ability on communication ability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6, no. 3, pp. 1685-1697, 2014.
- [9] M. S. Chung, "Relations on self-esteem,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reinforc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332-340,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332>
- [10] M. Jung, "Influence of ego states, self Esteem, and empath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 4614-46209,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614>
- [11] S. Y. Yang, H. N. Lim, J. H. Lee, "The study on relationship



-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empath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1, pp. 183-193,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183>
- [12] Y. S. Ba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e and empath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1, no. 1, pp. 52-60, 2015.  
DOI: <http://dx.doi.org/10.14370/jewnr.2015.21.1.52>
- [13] S. I. Im, J. Park, H. S. Kim, “The effects of nurse's communication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21, no. 3, pp. 274-282, 2012.  
DOI: <http://dx.doi.org/10.5807/kjohn.2012.21.3.274>
- [14] E. J. Ji, M. R. Bang, H. J. Jeon, “Ego resili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4, pp. 571-579,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4.571>
- [15] J. T. Kim, H. S. Shim, “A validity study on Korean version of the Myers Briggs Type Indicator (MBTI)”, *Korean Journal of Counsel and Psychology*, vol. 3, no. 1, pp. 44-72, 1990.
- [16] L. B. Myers, M. H. McCaulley,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85.
- [17] M. H. Davis,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6.
- [18] B. S. Je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2003.
- [19] R. B. Rubin, M. M. Martin, S. S. Bruning, D. E. Powe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development and test of a self-efficacy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October; Atlanta, 1991.
- [20] G. H. Hu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47, no. 6, pp. 380-408, 2003.
- [21] S. S. Hwang, E. J. Kim, “A study on MBTI personality type and defense mechan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2, no. 4, pp. 447-458, 2002.
- [22] H. J. Jang, M. A. Kim, “Temperament by MBTI personality types, learning styles and learning strategie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9, pp. 400-410,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9.400>
- [23] Y. R. Lee, S. H. Kim, M. S. Chu, “Stress, stress coping, and school adaptation according to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personality type in freshme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1, 172-182,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172>
- [24] H. J. Kim, M. S. Yi, “Factors influencing empathy in nursing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2, pp. 237-245,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2.237>
- [25] M. Y. Chun, S. H. Yoo, H. K. Park, “Medical students' empathy and its effect on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vol. 27, no. 4, pp. 283-290, 2015.  
DOI: <http://dx.doi.org/10.3946/kjme.2015.27.4.283>
- [26] G. E. Joo, K. Y. Sohng, H. J. Kim “Effects of a standardized patient simul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on nursing competence, communication skill,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ability for blood transfusion”, *The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2, no. 1, pp. 49-58, 2015.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5.22.1.49>
- [27] S. H. Hwang, K. M. Yun, “Exploration on the correlation between everyday creativity and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engineer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9, no. 3, pp. 399-434, 2015.
- [28] O. S. Lee, M. O. Gu,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6, pp. 2749-2759,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6.2749>
- [29] J. T. Kim, H. S. Shim, S. B. Jue, *MBTI development and application*, Seoul: Korea psychological testing institute, 1995.
- [30] S. Trenholm, A. Jense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NY: Wads worth Publishing Company, 2000.
- [31] B. J.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MBTI personality types and the discipline score, academic achievement of cadet nurses”,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vol. 21, no. 1, pp. 240-269, 2003.
- [32] S. Kim, J. H. Kim, Y. R. Hur, “A Proposal on Educational Method of Studying by Comparing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Types and Class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vol. 17, no. 2, pp. 107-119, 2005.
- [33] J. T. Kim, H. S. Shim, S. H. Lim, *My image my face*, Seoul: Korean Psychological Testing Institute, 1999.
- [34] S. H. Cho, *MBTI : I design my personality*, Seoul: Bugulbooks, 2009.

## 채 명 옥(Myung-Ock Chae)

[정회원]



- 199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 과학과 (간호학사)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 과학과 (간호학석사)
- 201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 과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의 안전, 성장발달, 시뮬레이션교육